

PKM GALLERY

FRIEZE SEOUL 2025

PKM Gallery | Booth No. A15

September 3-6, 2025 | COEX Convention Center Hall C & D

출품 작가

유영국	샘바이펜
윤형근	이원우
정창섭	정영도
서승원	신민주
이정진	구현모
백현진	김지원
정현	호르헤 파르도
올라퍼 엘리아슨	코디 최
홍영인	

PKM 갤러리는 프리즈 서울 2025 에서 현대미술의 다양한 흐름을 보여줄 국내외 전속 작가들의 주요 작품들을 소개한다.

우선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유영국**, **윤형근**, **정창섭**, **서승원**의 주요 회화들이 출품된다. 특히 이들의 작품은 이미 국제무대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번 출품작들을 통해 다시 한번 컬렉터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예정이다.

이정진은 지난 6 월, 영국에서의 개인전을 통해 현지 주요 언론인 가디언지,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대서특필되었다. 이번 출품작은 국내 미공개 신작으로, 프리즈 서울 2025 에서 처음 선보인다.

백현진은 최근 탄야 보낙다르 갤러리 LA 에서 열린 개인전 «Seoul Syntax»와 아뜰리에 에르메스에서 진행 중인 «두 번째 삶»을 통해 큰 조명을 받고 있다. 이 주요 작품들과 곁을 같이하는 그의 신작 회화 및 드로잉들이 출품된다.

작년 아트 바젤 마이애미에서 실험적인 솔로 부스를 통해 현지의 큰 주목을 받은 **정현**은

PKMGALLERY.COM

40, Samcheong-ro 7-gil, Jongno-gu, Seoul, 03049, Korea

T.+82 2 734 9467 | F.+82 2 734 9470

PKMGALLERY

형상성과 추상성 사이의 강렬한 시각적 에너지를 표출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조각가로 이번 부스에서는 청동 두상 조각과 인체 마케트 작업을 선보인다.

한편, 예술과 자연과학적 인식을 결합하여 끝없이 그 표현의 지평을 넓혀가며 세계적인 대가 반열에 오른 **올라퍼 엘리아슨**의 주요 시리즈인 크리스탈 볼 대형 벽면 조각이 이번 부스에 설치되어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 것이다.

현재 PKM 갤러리에서 개인전 «서투른 작곡가»를 진행 중인 **홍영인**은 우리 삶 속의 고정 관념적 위계 구조를 비이분법적인 사고와 다매체의 활용을 통해 해체를 시도해왔다. 이러한 개념성과 수공예적 예술품 생산행위를 결합하는 그의 창의적 접근은 국내외 아트씬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부스에서는 그의 자수 회화들이 출품된다.

최근 PKM 갤러리에서의 첫 개인전을 통해 미술계와 대중의 커다란 호응을 얻은 팝 아티스트 **샘바이펜**의 신작 회화, 언어와 색채를 재조합해 익숙한 의미를 전복하고 유머와 아이러니가 공존하는 특정 문구를 배치하여 심리적 풍경을 환기하는 **이원우**의 Air Words 회화 시리즈, 폭발적 색채와 즉흥적 붓질로 신체적 에너지와 감각적 리듬을 드러내며 추상과 형상의 경계를 유동적으로 넘나드는 **정영도**의 회화, 녹색과 청색의 대형 화면에 겹겹의 붓질과 번짐으로 자연적 정서와 신체의 에너지가 교차하는 **신민주**의 회화가 출품되며, 이 외에 **구현모**의 감각적인 세라믹 벽 조각과 정교한 드로잉, **김지원**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한 ‘맨드라미’ 회화 150 호 대작이 출품된다.

또한 동시대 미술의 주요 작가로서 미술사적이거나 개인적인 이미지를 쪼개고 레이어링해 추상화시키며 미술·디자인·건축을 유연하게 넘나드는 **호르헤 파르도**의 작품, 네온 빛 초상으로 현실과 가상, 욕망과 정체성이 교차하는 동시대 심리를 디지털 언어의 회화로 전환하여 표현한 **코디 최**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